광양 남부연습림 관사 관광자원 개발

사업비 6억 확보 위해 문화재청 방문

효율적관리 차원 문화재청 이관 협의

광양시가 국가등록문화재인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국비확보에 나섰다.

7일 광양시에 따르면 남부연습림 관사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6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문화재청을 직접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 광양시는 관사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발전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또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교육부 국유재산인 관사의 문화재청 이관을 협의했다.

'서울대학교남부연습림관사'는 일제강점기 당시 동경제국대학 조선연습림 광양사무소 내에 직원 관사로 지은 건축물로 현재는 2개동이 남아 국가등록문화재 제223호로 관리되고 있다.

광양시는 지역의 문화유산인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보수정비를 통해 관사의 원형복원 등 개보수를 완료했다. 지난 3월 전라남도 평가를 통과해 현재 문화재청의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광양시는 복원된 관사를 중심으로 주변 안전시설과 산책로 등을 보완·정비해 서울대 학술림, 장도전수교육관, 광양역사문화관 등과 연계한 생물·문화관광 자원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수 문화재팀장은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는 생물자원의 보고인 백운산을 중심으로 한 학술림의 조성 배경을 알 수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관사 건물로서 그 보존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민족이 독립을 외치던 1919년 일제가 조선에 대한 침략을 영구히 하기 위해 건축물을 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소중한 자원인 만큼 문화재와 백운산 등과 연계한 생물·문화관광 자원의 거점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광양시가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

한편, 서울대 남부연습림 관사는 개보수 과정에서 발견된 상량문에 의해 1919년에 건축된 사실이 최초로 확인됐다.

/광양=정경화 기자

내고장 사람들

조충훈 순천시장은 8일 오후 5시 한옥글방에서 열리는 문화도시추진협의체 제2차 회의에 참석한다.

심남식 곡성군수 권한대행은 8일 오전 8시40분 군청 소통마루에서 일일업무 보고회를 갖고 현안을 논의한다.

송경일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8일 광양 다압면에서 열리는 동부지역본부 농촌 일손돕기에 참석한다.

순천 한평정원 페스티벌 참가자 모집

오늘부터…일반 25·학생부 25개소

순천시는 대한민국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모델을 제시하고 재능있는 정원작가들의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는 '제5회 대한민국 한평정원 페스티벌' 참가자를 8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공모한다.

순천시는 '내 마음에 가득한 정원'이라는 주제로 일반부와 학생부 참가자를 공모한다. 특히 수준높은 일반부 참가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일반부는 유형Ⅰ과 유형Ⅱ로 구분해 공모할 예정이다.

조성규모는 초청작가 1개소를 포함한 총 51개소로 일반부 25개소(유형Ⅰ 5개소·유형Ⅱ 20개소), 학생부 25개소다.

공모 주제는 일반부는 '행복을 나누는 공동체 정원'이고 학생부는 '설레임 가득한 선물 같은 정원'이다. 국가정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간직할 행복한 정원 모델을 제시하고, 행복한 쉼터와 힐링 장소로서의 국가정원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일반부 참가자 기회 확대를 위해 시상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유형Ⅰ은 30㎡ 면적으로 5개소를 조성하고, 유형Ⅱ는 학생부와 같은 8.64㎡ 면적으로 20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공고문은 순천시청 홈페이지(www.suncheon.go.kr)와 순천만국가정원 홈페이지(garden.sc.go.kr), ㈜이츠커뮤니케이션즈(its2014.co.kr)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

/순천=박경식 기자

고흥 총자산 3조원대 진입

2007년 1조3,825억 대비 2배 증가

시설 투자·재정운영 효율화 성과

고흥군은 총 자산이 3조원대에 진입함과 동시에 채무없는 자치단체에 등극했다.

7일 고흥군에 따르면 2017년 재무회계 결산결과 총 자산 3조 491억원으로 집계돼 지난 2007년 1조 3,825억원 대비 2배 이상 향상됐다.

고흥군은 이처럼 자산이 급격히 증가한 것에 대해 군단위 지방교부세·국비확충 자치단체라는 명성에 힘입어 다양한 사회, 복지, 편의시설에 꾸준히 투자하고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이뤄낸 결과로 평가했다.

고흥군은 타 자치단체와 달리 청사 신축을 위한 건립기금 마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지방채 발행 없이 지난 2008년부터 꾸준히 건립기금을 조성·적립했다. 이렇게 마련된 군비 538억원을 공사비로 충당하는 등 채무제로를 앞당겼다.

반면, 부채는 26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기계약 근로자 등이 일제히 퇴직할 경우를 대비한 퇴직급여 충당금 56억원과 일시 보관했다가 지급하는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금 140억원, 국도비사업 정산 반환금 47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고흥군은 장래에 발생되는 부담행위이거나 상환자금이 불필요하다는 점에서 지방재정 건전 운영과는 큰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고흥군은 2017년 결산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전남도내 17개 군부에서는 지방재정이 가장 견실한 자치단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남도내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공시했던 2016년도 지방재정 지표에 따르면 군단위에서 자산은 가장 많고, 부채와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군단위 평균 절반에 이르러다. 2017년 결산결과가 자치단체별로 공시되면 2016년보다는 더 향상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전국에서 가장 탄탄한 지방재정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고흥=진중언 기자

보성 과수 검역병해충 조사

보성군은 오는 25일까지 과수 검역병해충인 자두곰보병(PPV)과 참다래 궤양병(Psa 3) 방지를 위한 발생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검역병해충인 자두곰보병을 조기에 박멸하고 참다래 궤양병의 새로운 병원형인 Psa 3 발생 분포를 비교·분석해 지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된다.

자두곰보병은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으로 복숭아, 매실 등 핵과류에 피해를 주고, 참다래 궤양병은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골드키위에 감염돼 피해를 일으킨다.

보성군은 관내 핵과류 및 참다래를 재배하는 461농가, 286ha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의심 병징 발견시 시료 채집 후 검정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검역병해충이 발생할 경우 해외수출 및 국내유통이 어려워지고, 자두곰보병 발생 시 감염주는 즉각 굴취 및 매몰 처리된다.

/보성=선상희 기자

순천 재활용품 분리수거제 전면 시행

순천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단독주택까지 요일별 재활용품 분리수거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순천시는 버려지는 자원의 재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월·목요일은 플라스틱, 화·금요일은 병·캔·종이·스티로폼, 수·토요일은 비닐류만 수거하는 요일별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실시한다.

요일별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재활용품의 경우 가정에서 이물질을 철저히 제거, 요일별 재활용 배출항목을 분리해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거나 부피가 큰 종이박스나 스티로폼은 따로 묶어서 일몰 후 배출해야 한다.

순천시는 요일별 배출항목이 아닌 재활용품은 일체 수거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순천시는 최근 수도권 폐비닐 등 수거 중단과 같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1회용품 사용 안하기' 등 환경 보호 실천을 위한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쓰레기가 자원이 되고 더욱 깨끗한 순천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1회용품이나 비닐류 사용을 줄이기와 요일별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당부 드린다"며 "앞으로 무단투기 및 종량제 규격봉투 음식물류 혼입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히 지도·단속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순천=박경식 기자

여수 학동지구 침수예방시설 건립

하수 1만2천톤 저장

상부 공영주차장 활용

여수시가 시청 앞 공원부지에 하수저류시설을 건립, 학동지구 침수 예방이 기대되고 있다.

7일 여수시에 따르면 하수 1만2,0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학동지구 하수저류시설이 지난달 25일 준공됐다.

이 시설은 상습침수지역인 학동지구의 침수를 막기 위한 시설로 지난 2016년 4월 착공됐다.

사업비는 국비 88억원, 시비 37억원 등 125억원이 투입됐다.

여수시는 상습침수지역인 학동지구의 침수를 막기 위해 시청 앞 공원부지에 하수저류시설을 설치했다. 상부에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시설 활용도를 높였다.

하수저류시설은 집중호우 등 침수가 우려될 경우 가동되며, 하수를 저장하고 배출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여수시는 하수저류시설 상부에 자동차 9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시설 활용도를 높였다.

공영주차장은 필요한 행정절차를 거친 후 6월 말 개방될 예정이다.

공영주차장이 운영되면 인근 상가와 우체국, 금융기관, 거북선공원 등을 찾는 시민들의 주차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곽재영 기자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여 수	010-8648-1236
광 양	010-3622-9898
순 천	010-2547-7890
구 례	010-5431-4006
곡 성	010-6764-6100
고 흥	010-9151-2828
보 성	010-4633-1790

클릭! 고향 소식

나주경찰 사랑의 헌혈

나주경찰서는 7일 경찰서 본관 앞에서 '사랑 나눔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이날 헌혈은 나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및 의경 등 약 30여명이 참여, 사랑 나눔 운동에 동참했다.

나주경찰서 관계자는 "이웃 사랑 나눔을 위해 매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헌혈 행사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랑 나눔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나주=이재순 기자

신안 야광반사스티커 배부

신안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안전이용 지침 팜플렛과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야광반사스티커' 각각 1,500매를 자체 제작해 배부했다.

신안군은 농기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농업기계 사용법 숙지와 올바른 점검', '작업에 따라 적절한 보호 장비 착용' 등 상황별 주의사항도 지도하고 있다.

강행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야간 도로주행을 줄이고 안전수칙을 잘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무안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

무안군은 최근 승달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원 103명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식중독 발생 사고에 취약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관리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개인위생관리 요령 등에 중점을 뒀다.

무안군 관계자는 "철저한 감독과 관리 강화로 식중독 및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박주현 기자

여수 롯데케미칼 생필품 전달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샤롯데 봉사단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한 보훈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샤롯데 봉사단은 최근 전남동부보훈지청의 추천을 받아 지역 내 보훈가족 15세대를 선정, 생필품을 전달하고 청소봉사를 실시했다.

봉사단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가족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준비했다"며 "이달 중순에는 보훈가족 집수리 봉사활동을 계획 중이다"고 밝혔다. /여수=곽재영 기자